

특자도 성공 출범, 범도민 힘으로

김관영 도지사·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민주 홍익표 원내대표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범도민 111여만명 서명부 전달

전북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범도민 111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 전달과 함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으로 이뤄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

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 새로운 지위에 부합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쏟는 한편, 범도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 총 111만3,5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도는 단기간에 역대급 인원의 서명을 달성한 것은 14개 시군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도내 주요 대학교 등에서 현장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도 적극적으로 서명에 나서는 등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푸드 축



14일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한병도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등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촉구 건의문과 범도민 111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식을 하고 있다.

“콘텐츠융합진흥원장 출장보고서 탄탄해 졌 배겼다”

이병도 도의원,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필 의혹도 제기
“출장 보고서에는 사진 몇장 뿐, 출장지 행적 확인 할 수 없어”
최용석 원장 “삼일회계연구원 보고서 자료 반영... 시정할 것”

“최용석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의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보고서는 사실상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며, 심지어 대필 의혹도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14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 원장의 출장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최 원장 혼자서 공무원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원장은 세계적 행사인 CES참관 경험을 직원과 함께 공유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원장 혼자 기회 독점했다.”

공무원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진흥원의 규정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대신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서면심사로 인해 심사위원회의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출장지 등급을 잘못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 원장의 출장보고서는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라며 “글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영터리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최 원장의 출장보고서를 여러 기관이 작성한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보고서와 비교해 보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출장보고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과

이미지는 삼일회계법인경영연구원의 보고서 5대 테마로 살펴본 CES 2023 : M.A.D.E for Human Security’를 도용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 밖에도 최 원장이 2~3개기사의 인터넷신문 기사를 베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출장보고서에는 사진 몇 장만 첨부돼 있을 뿐 최 원장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출장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출장보고서의 대필 의혹도 제기된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석 진흥원장은 “현장 정보 파악을 가장 잘한 삼일회계연구원 보고서 자료를 반영하고 나머지 시사점과 연계방안을 작성했다”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진흥원장은 “국의 실감콘텐츠 관련 최대 전시회 참관을 통한 연구개발 실증 강화 및 최신 첨단산업 기술동향 파악으로 인공지능 고서번역 운영전략 제고’를 목적으로 올 1월 4~10일까지 7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참관했다.” /김재훈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방역인력 부족”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1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 럽피스킨 병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에서는 3만4,028건(213농장)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남에 이



어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 방역관 인력이 21명이나 부족해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가축 질병 방

역,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등 축산업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 인력도 19명이나 부족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 및 수의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 방역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 방치된 채 안전사고 노출

김대중 도의원, 예코융합섬유연구원 행감서
“2014년 40억·2019년 42억 투자 리모델링 시설방치·교육기자재 구입 재봉틀 흉물 상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전북도의회 김대중(익산1) 의원이 지난 13일, 제405회 정례회 예코융합섬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협세 82억원을 투자한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이 방치된 채 누수와 누전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실태를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코융합섬유 연구원은 지난 2014년 총사업비 40억 원(도비20, 시비20)을 투자해 당시 부도난 공장을 매입하고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건립했다.

당시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은 섬유 관련 내수 및 수출분야, 패션디자인 분야 기업 등을 입주해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4년 이후 5년 동안 운영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19년 국비 42억 8,000만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건물동은 18개 입주기업 공간과 전시장, 접견실, 공동장비실, 인큐베이터실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물동은 텅 비었으며, 2~3층에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고 창문 전체는 누수를 막기 위해 비닐이 쳐져 있거나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제품은 누전 위험성 때문에 비닐로 포장을 해놓는 등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내에 2014년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사업으로 15억8,000만원을 투자해 여성 봉제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교육기자재로 구입한 재봉틀 100대는 지난 2016년 1년 동안만 사용하고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의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장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말뚝인 독에 물 붓듯 열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며, “시설을 어떻게 유지·활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14일 32일 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4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며, 30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며, 13일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 관광재단 설립과 종교문화유산 관광 재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고, 무주군의회는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교향사라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차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의미있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4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3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7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부안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태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고,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과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공전량 구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모두 채택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성과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하겠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발전적인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는 부안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중단은 부적절”

강동화 도의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4일 진행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지적하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올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어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이유는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그 특성상 쉽게 부수러지는 성질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부유물로 인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수산물 체내 미세플라스틱 축적으로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 억제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정책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페스티로폼 부표가 바다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시작된 해당 사업의 경

우 해양수산부의 국비사업 종료로 이유로 2023년도 종료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달리 수분과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수거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또한 높은 실정으로 처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명을 다한 페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바다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업이 시작되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고 한다면 사업의 종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사업 추진의 효과와 수요가 높다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북지역의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 이미 73톤의 페스티로폼 부표가 처리되었고, 나머지 71톤 역시 인증부표로 교체한 어업인이 반납한 부표들을 모아 오는 12월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인 144톤이 모두 수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현재 정부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억제 관련 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과 전 세계적인 해양 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해수부의 사업중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해수부의 사업중단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전북도의 결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며 전북도에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와 관련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채이배 전 국회의원, 25일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송동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채이배 전 의원이 쓴 ‘채이배의 공정경제 만들기’는 그 동안 회계사·시

민활동가·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걸어 온 경제개혁의 길을 소개한 책이다.

그는 공정경제와 기업생생협력 전문가라 불리며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문=김관곤 기자